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분석*

김 두 영**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연구전담 조교수

박 원 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요약》

이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김두영, 박원희, 2013)를 적용하여 장애인 야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분류함으로써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선평향성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 수행을 위하여 먼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소속 장애인야학 36곳 중 55.6%에 해당하는 20개 기관에서 2013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성인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명칭, 목적, 내용, 대상, 형식, 장소를 기준으로 프로그램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6개 영역 분류 결과, 학력보완교육이 53개(32.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40개(24.4%), 기초문해교육 34개(20.7%), 인문교양교육 28개(17.1%), 시민참여교육 8개(4.9%), 직업능력향상교육 1개(0.6%) 순으로 나타났다. 18개 영역 분류 결과에서는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이 38개(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글문해 프로그램이 29개(17.7%), 생활소양 프로그램이 19개(11.6%),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이 17개(10.4%), 문화예술숙련 프로그램이 16개(9.8%),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이 15개(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장애인야학의 특성 변인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야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 평생교육, 개선평향성,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 장애인 야학

* 이 연구는 연구자의 박사학위 취득 논문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2013)'의 일부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정·재편집한 것임.

** 제1저자(kdy205@chol.com)

*** 교신저자(dklivings@daum.ne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평생교육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그 궁극적 목표로 한다. 즉 평생교육은 학습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고, 교육이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교육과학기술부·평생교육진흥원, 2010).

장애인도 분명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하는 경우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은 이미 1985년 UNESCO 국제성인교육회의에서 채택한 ‘학습권 선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선언은 ‘교육조건이 정비된 상황에서 학습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며, 장애인이나 고령자·비문해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학습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도 이것은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정인숙 외, 2005). 장애인이 일반인과 구별됨이 없이 존엄성을 인정받고,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에 참여하여 만족할만한 삶의 질을 향유해야 하는 것은 소외계층의 하나인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이 시대의 책임이요 국가의 의무이다(정동영, 정동일, 정인숙, 2003).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인프라 부족, 지역사회의 일반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접근 환경 미비 및 접근 기회 제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 미비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성숙, 2005).

보건사회교육원(2011)의 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평생교육 프로그램 6대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학력보완교육에 0.2%,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에 0.2%, 직업능력향상교육에 1.4%, 인문교양교육에 0.8%, 문화예술교육에 2.1%, 시민참여교육에 0.3%가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복천 외(2009)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 졸업 이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1회 이상 참여한 경우가 전체 조사 대상의 14.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립특수교육원(2012)의 특수교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등록 장애인은 268만여 명(보건사회연구원, 2011)에 달하는데 반해, 실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성인은 8만 4천여 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고등학교까지의 학교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역시 학령기의 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제도권 교육으로부터 가장 극명하게 소외되어 온 성인 장애인을 위한 민간 교육기관으로서 공교육이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 간극을 메우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이 바로 장애인야학이다(김용욱, 하상근, 2009).

장애인야학은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에 9곳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제기되고, 특수교육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현재는 전국에 40곳 넘게 운영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장애인야학이 운영비 등 예산지원의 부족, 교육공간의 부족 또는 낙후된 교육환경의 문제, 학생들의 통학 문제, 교사 수급의 어려움, 보조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야학은 학교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에게 다양한 학교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명실공이 대표적인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 평생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지려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명확한 분석과 개설정향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향후 장애성인 평생교육의 중심이 될 장애인야학(김병하, 2009)에서 2013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성인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이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김두영, 박원희, 2013)를 적용하여 분류함으로써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현황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이를 토대로 장애인야학이 평생교육 시설로서 진일보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은 단순히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개설했는지 계수데이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개설비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비율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체에서 하나의 프로그램 유형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 첫째, 장애인야학에서 2013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성인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을 파악한다.
- 둘째, 조사한 프로그램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김두영, 박원희, 2013)를 적용하여 분류함으로써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6개 영역 및 18개 영역의 개설정향성을 분석한다.
- 셋째, 장애인야학의 특성변인,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별, 권역별, 운영주체별, 평생교육시설 등록 여부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을 분석한다.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전국의 장애인야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전국장애인야학협회의 도움을 받아 소속 장애인야학 36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2013년 1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이 중에서 전체 장애인야학의 55.6%에 해당하는 20개 기관이 조사에 응했으며, 모두 168개의 프로그램을 수집하였다. 조사에 응한 장애인야학의 지역별 분포 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 장애인야학의 지역별 분포 현황

지 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전 북	계
빈 도	1	1	1	3	2	2	1	4	2	1	2	20

조사대상 장애인야학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8개(40%), 충청권이 3개(15.0%), 영남권이 3개(15.0%), 호남권이 4개(20.0%), 강원·제주권이 2개(10.0%)로 총 20개 기관임을 알 수 있다.

2. 조사 내용

이 연구에서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조사는 프로그램 분류를 위한 사전 행위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분류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분류할 수 있는 분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를 수행할 때,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프로그램 조사를 수행하고 프로그램 명칭이나 내용, 혹은 목적 등 한 가지 기준만을 토대로 분류를 수행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프로그램 분류를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김두영, 박원희, 2013).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며, 하나의 요소로만 분류를 수행한다면 수없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프로그램을 분류하는데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조사 수행 시 어떤 방법적인 원칙에 의해서 조사를 수행할 것인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분류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분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한다(고영화, 2011).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김진화, 고영화, 2009)의 분류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 6개 요소, 즉 프로그램의 명칭, 목적, 내용, 대상, 형식, 장소를 기준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조사표를 작성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평생교육 프로그램 요소 조사내용

조사 항목	조사 내용
명칭	프로그램을 학습고객에게 제공할 때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프로그램의 제목
목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담당자가 설정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하려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
내용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내용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제공받는 직접적인 수혜자
형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분류한 영역
장소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기관

출처: 김진화, 고영화(2009).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 기준

이 연구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김두영, 박원희, 2013)에 의해 분류된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유형별 개설비율 정도를 지칭한다. 즉, 장애인야학이 개설하고 있는 전체 프로그램을 분류한 후, 6개 영역 및 18개 영역의 유형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범위와 범주는 매우 광범위하다. 그리고 이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기준도 학자 또는 학문적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다르다.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평생교육 내용 외에 장애인만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에 많은 연구들(Ashman Elkins, 1995; 백은희 외, 2001; 정동영, 정동일, 정인숙, 2003; 박성숙, 2005; 정인숙, 2005; 정인숙

6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4권 4호)

외, 2005; 정해동, 이성봉, 2007; 최복천 외, 2009; 박승철 외, 2010; 윤점룡 외, 2010; 강창욱, 노은진, 2011; 박노동, 2011; 송소현 외, 2011 등)은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평생교육 욕구를 조사함에 있어 정인숙 외(2005)와 정해동, 이성봉(2007)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문해교육, 직업교육, 교양교육, 정보화교육, 여가교육, 기타의 6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박은혜 외(2007)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컴퓨터 활용 프로그램, 문화·예술 참여 프로그램,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 장애인 인권 증진 프로그램, 장애인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장애인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또, 박승철 외(2010)와 최복천 외(2009)는 문해교육, 직업교육, 교양교육, 정보교육, 여가교육, 자립생활교육으로 분류하고 있고, 윤점룡 외(2010)는 취업·직업 관련 교육, 기초·교양·문화 관련 교육, 시민·안전·경제·사회참여 관련 교육, 취미·오락·여가 관련 교육, 건강·보건·스포츠 관련 교육, 학력인정교육, 기타의 7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강순원 외(2011)는 문해교육, 직업교육, 교양교육, 정보화교육, 여가교육, 자립교육, 건강교육, 시민참여교육의 8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분류는 여러 가지 요소로 존재하는 프로그램 요소들 중 특정 하나의 기준만을 선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를 시도함으로써 프로그램 분류를 수행함에 있어 분류가 되지 않거나 분류가 애매한 프로그램이 다수 존재하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시도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는 어떤 이론적 준거나 원칙 혹은 방법에 의해서 분류를 수행하기보다는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분류를 수행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분류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분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기 쉽다. 또한 이러한 분류들은 평생교육법에 기초하지 않음으로써 제도적 연계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 및 국가차원의 평생교육 통계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김두영, 박원희(2013)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분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104개 기관 873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귀납적으로 적용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6개 영역을 근거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분류를 설정하였으며, 기관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시를 간단히 표로 제시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및 분류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개발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함으로써 용어와 개념에 대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평생교육 영역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김두영, 박원희(2013)가 제안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분류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표

대분류		중분류		프로그램 예시
6개 영역	정의	하위영역	정의	
기초문해 교육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해득능력과 이를 일상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고, 중증의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한글문해 프로그램	장애성인들 중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해득능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	한글교실(초급, 중급) 문해교실 도전문맹 장애인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한글생활문해 프로그램	문자를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고급 문해반 컴퓨터 문해교육반 한글 작문교실 한글 응용교육
		기초자립생활 프로그램	중증의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신변처리 기술, 일상생활기술, 사회성기술 및 지역사회 적응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스스로 학교 신변자립교육 지역사회적응교육 자립생활지원교육
학력보완 교육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학교 이외의 교육을 통해 초·중등교육 법과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 교육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초등학력의 보완 및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 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프로그램	중입검정고시반 초등학력인증강좌 초등교과연계강좌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중·고등학교 학력의 보완 및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고입검정고시반 대입검정고시반 수능준비반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전문학사 및 학사 학력의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학점은행제강좌 독학사강좌 대학비학점강좌
직업능력 향상교육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기의 적성, 흥미, 능력에 알맞은 일을 택하여 그것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판단, 습관 등을 개발하고 이런 능력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기초직업교육 프로그램	직업 생활을 수행하는 데 일반적으로 요구 되는 직업의식과 작업 태도 및 습관 그리고 직업 지식 및 정보 등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직업의식교육 직업탐색교육 직업적응훈련 직장예절교육
		전문직업교육 프로그램	특정한 직업을 갖기 위하여 준비하거나 현직에 있는 근로자들이 직무 수행상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	직업기능교육 직종훈련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 기능대회준비교육
		자격인증 프로그램	장애인들이 주로 종사할 수 있는 표본 작업 기능을 익혀 소정의 자격을 제도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컴퓨터자격취득과정 지도자양성과정 점역교정사양성과정 웃음치료사양성과정

8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4권 4호)

〈표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표 (계속)

대분류		중분류		프로그램 예시
6개 영역	정의	하위영역	정의	
문화예술 교육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스포츠 활동과 일상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평생교육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레저스포츠를 포함하여 체력증진과 건강한 생활을 목적으로 여가 시간에 행할 수 있는 자발적인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레저스포츠강좌 생활스포츠강좌 스포츠예술활동 건강스포츠강좌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삶의 문화를 보다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노래교실(민요교실) 미술(공예) 활동 사진교실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숙련 프로그램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예교실, 악기교실 중창·합창교실 도자기공예 영상미디어교실
인문교양 교육	장애인이 소속한 사회에서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사회재활 프로그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생활에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수준 높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재활 교육 프로그램	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중도 시각장애인 재활교육 성인심리재활 보조기기활용교육
		생활소양 프로그램	건강한 삶과 생활을 위한 심리적 안정을 촉진하며,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소양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정보화교육 생활요리 역할교육 보건·장애인 성 교육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현대인으로서 인문학적 교양과 상식을 확장하며 문학·역사·철학과 관련된 체험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시낭송 프로그램 지역문화탐방 인문학·철학강좌 건강강좌
시민참여 교육	현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며,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	시민의식 프로그램	장애인의 권리를 찾게 하며, 전반적인 사회 문제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장애인권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주권교육 장애인 기자단
		시민역량 프로그램	현대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무성을 개발하고, 공익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민을 발굴·육성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장애인활동가 양성과정 수화통역사 양성과정 인권강사 양성과정
		시민활동 프로그램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개인 및 집단의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수화교실 휠체어지킴이교육 지역나눔활동 봉사활동동아리

출처: 김두영, 박원희(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발 기초연구.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 절차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종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분류하는 것은 힘든 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최근 장애인 평생교육의 당위성이 제기되고, 국가적인 지원 정책이 확대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분류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분류를 수행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이 존재해야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단계에 따라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를 실시하였다.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요소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고 빠짐없이 조사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요소는 프로그램을 분류하는 기초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는 장애인야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프로그램의 명칭, 목적, 내용, 대상, 형식, 장소를 기준으로 프로그램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둘째, 조사된 장애인야학 프로그램들 중 어떤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평생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만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보았다. 둘째,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일지라도 그 교육활동이 반드시 교육적인 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야만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보았다.

셋째,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표(김두영, 박원희, 2013)의 기준에 따라 대분류와 중분류를 시도하였으며, 프로그램을 분류할 때는 프로그램의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이 때, 분류가 되지 않거나 여러 영역으로 분류되는 프로그램은 분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체 조사 대상 168개 프로그램 중 4개 프로그램은 장애인대학, 장애인 캠프 등과 같이 다양한 단위 프로그램들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미분류 항목으로 제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총 164개의 프로그램을 분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3인에게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를 설명하고, 조사대상 164개의 프로그램을 3등분하여 각각 54개, 55개, 55개의 프로그램 분류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각 전문가가 분류한 데이터는 연구자가 분류한 데이터와 비교하여 분석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다섯째, 프로그램 분석은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및 개설정향성 결과, 그리고 장애인야학 특성변인과 프로그램 개설정향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5. 신뢰도

연구자가 수행한 프로그램 분류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3인에게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를 설명하고,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장애인 평생교육 6개 영역을 선별하는 방법’, ‘하위 분류체계 영역 중 영역분류지침’,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 예시’에 대한 사전교육을 2차례에 걸쳐 실시한 후, 조사된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164개를 3등분하여 분류하도록 하였다.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3인이 각각 분류한 데이터를 연구자가 분류한 데이터와 비교하여 분석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산출한 분석자간 신뢰도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대분류 및 중분류 영역이 일치한 프로그램 수를 일치한 수와 불일치한 수의 합으로 나누고, 다시 100을 곱하여 구하였다. 연구자와 3인의 전문가 사이의 신뢰도는 91.4%, 86.2%, 90.3%로 모두 86% 이상의 신뢰도를 보였으며, 평균 89.37%로 높은 신뢰도를 기록하였다.

6. 자료 처리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WIN 18.0 한글판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현황 분석 결과는 프로그램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장애인야학 특성변인별 프로그램 개설 수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야학 특성변인별 프로그램 분류 결과는 장애인야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조사 대상 장애인야학은 모두 20개 기관으로 평균 학급 수는 4.5학급, 평균 학생 수는 28.1명, 평균 교사 수는 15.6명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한 학급당 학생이 6.2명,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8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집된 20개의 장애인야학에서 2013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성인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164개로, 기관 당 평균 8.2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당 평균 프로그램 수인 8.6개(김두영, 김호연, 박원희, 2013)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집된 장애인야학 20개 기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별, 권역별, 운영주체별, 평생교육시설 등록 여부별, 야학규모별, 프로그램 개설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조사대상 장애인야학의 현황

구분	변수	N	%	구분	변수	N	%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8	40.0	운영주체	법인	6	30.0
	비수도권	12	60.0		민간	14	70.0
권역별	수도권	8	40.0	평생교육 시설등록 여부	등록	11	55.0
	충청권	3	15.0		미등록	9	45.5
	영남권	3	15.0	야학 규모	5학급 미만	11	55.0
	호남권	4	20.0		5학급 이상	9	45.5
	강원·제주	2	10.0	프로그램 개설규모	7개 이하	11	55.0
					8개 이상	9	45.5
총계		20	100	총계		20	100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수도권에 위치한 장애인야학이 8개(40.0%)이고 비수도권에 위치한 장애인야학이 12개(60.0%)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8개(40.0%), 충청권이 3개(15.0%), 영남권이 3개(15.0%), 호남권이 4개(20.0%), 강원·제주권이 2개(10.0%)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를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로 나누어 살펴보면, 법인이 6개(30.0%), 비영리민간단체가 14개(70.0%)로 장애인야학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져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 등록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등록한 기관이 11개(55.5%),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9개(4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야학의 규모는 평균 학급 수보다 작은 경우(소형)와 평균 학급 수보다 많은 경우(중형)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5학급 미만인 경우가 11개(55.5%), 5학급 이상인 경우가 9개(45.5%)로 나타났다.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규모 역시 평균을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7개 이하인 야학이 11개(55.5%), 8개 이상인 야학이 9개(45.5%)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장애인야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규모를 위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별, 권역별, 운영주체별, 평생교육시설 등록 여부별, 야학 규모별, 프로그램 개설 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1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4권 4호)

〈표 5〉 장애인야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현황

구분	변수	N	%	구분	변수	N	%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65	39.6	운영주체	법인	49	29.9
	비수도권	99	60.4		민간	115	70.1
권역별	수도권	65	39.6	평생교육 시설등록 여부	등록	108	65.9
	충청권	28	17.1		미등록	56	34.1
	영남권	14	8.5	야학 규모	5학급 미만	73	44.5
	호남권	47	28.7		5학급 이상	91	55.5
	강원·제주	10	6.1	프로그램 개설규모	7개 이하	62	37.8
총계		164	100		8개 이상	102	62.2
총계		164	100	총계		164	100

수도권 지역의 경우, 8개(40.0%) 야학에서 65개(39.6%)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2개(60.0%) 야학에서 99개(60.4%)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야학의 분포 비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비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65개(39.6%), 충청권은 28개(17.1%), 영남권은 14개(8.5%), 호남권은 47개(28.7%), 강원·제주권은 10개(6.1%)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야학의 분포 비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충청권 지역의 야학이 영남권 지역의 야학보다 다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법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49개(29.9%),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115개(70.1%)로 나타났으며, 평생교육시설 등록 여부별로 살펴보면, 등록한 경우 108개(65.9%), 미등록한 경우 56개(34.1%)로 나타나 모두 야학의 분포 비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야학 규모별로 살펴보면, 5학급 미만인 경우 73개(44.5%), 5학급 이상인 경우 91개(55.5%)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학급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프로그램 개설 규모별로 살펴보면, 7개 이하인 경우 62개(37.8%), 8개 이상인 경우 102개(62.2%)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애인야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장애인야학에서 제공하는 장애성인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수는 지역이나 운영주체별, 혹은 평생교육시설 등록여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1)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6개 영역의 개설정향성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김두영, 박원희, 2013)를 적용하여 장애인야학에서 2013년 현재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분류함으로써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을 파악하는 데 있다.

먼저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6개 대분류 영역의 개설정향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6개 영역의 개설정향성

대분류	기초문해 교육	학력보완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문화예술 교육	인문교양 교육	시민참여 교육	총계
N	34	53	1	40	28	8	164
%	20.7	32.3	0.6	24.4	17.1	4.9	100

표집된 20개의 장애인야학에서 2013년 현재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6개 영역을 분류한 결과, 학력보완교육이 53개(3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40개(24.4%), 기초문해교육 34개(20.7%), 인문교양교육 28개(17.1%), 시민참여교육 8개(4.9%), 직업능력향상교육 1개(0.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야학의 본래 취지가 대부분 가정환경이나 장애 혹은 그 외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학교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18개 영역의 개설정향성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표를 기준으로 장애인야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18개 영역을 분류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18개 중분류 영역의 개설정향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이 38개(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글문해 프로그램이 29개(17.7%), 생활소양 프로그램이 19개(11.6%),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이 17개(10.4%), 문화예술숙련 프로그램이 16개(9.8%),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이 15개(9.1%), 여가스포츠 프로그램이 7개(4.3%),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과 시민의식 프로그램이 각각 5개(3.0%), 한글생활문해 프로그램과 사회재활

1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4권 4호)

프로그램이 각각 4개(2.4%), 시민역량 프로그램이 3개(1.8%), 기초자립생활 프로그램과 전문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각각 1개(0.6%)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 기초직업훈련 프로그램, 자격인증 프로그램, 시민활동 프로그램은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18개 영역의 개설정향성

대분류	중분류	N	%
기초문해교육	한글문해 프로그램	29	17.7
	한글생활문해 프로그램	4	2.4
	기초자립생활 프로그램	1	0.6
학력보완교육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	15	9.1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	38	23.2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	0	0
직업능력향상교육	기초직업교육 프로그램	0	0
	전문직업교육 프로그램	1	0.6
	자격인증 프로그램	0	0
문화예술교육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7	4.3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	17	10.4
	문화예술숙련 프로그램	16	9.8
인문교양교육	사회재활 프로그램	4	2.4
	생활소양 프로그램	19	11.6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5	3.0
시민참여교육	시민의식 프로그램	5	3.0
	시민역량 프로그램	3	1.8
	시민활동 프로그램	0	0
총계		164	100

18개 영역 분류 결과를 대분류 영역별로 살펴보면, 기초문해교육 영역의 경우 한글문해 프로그램이 29개(17.7%), 한글생활문해 프로그램이 4개(2.4%), 기초자립생활 프로그램이 1개(0.6%)로 한글문해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보완교육 영역은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이 38개(23.2%),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이 15개(9.1%)이고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었다.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보다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이 두 배 이상 많은 것은 장애인야학이

지난 20여 년간 많은 장애인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취득의 기회를 제공해 왔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직업능력향상교육 영역은 전문직업훈련 프로그램 1개(0.6%)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교육 영역은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이 17개(10.4%), 문화예술숙련 프로그램이 16개(9.8%), 여가스포츠 프로그램이 7개(4.3%)로 모든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을 골고루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교양교육 영역은 생활소양 프로그램이 19개(11.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과 사회재활 프로그램이 각각 5개(3.0%), 4개(2.4%)로 나타났다. 생활소양 프로그램은 생활영어, 생활한자, 장애인 컴퓨터 교실, 생활요리,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소양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선호하고, 또 장애인야학 측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참여교육 영역은 시민의식 프로그램이 5개(3.0%), 시민역량 프로그램이 3개(1.8%) 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활동 프로그램은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애인야학 특성변인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1)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른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6개 영역 분류 결과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른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대분류	수도권	비수도권	총계
기초문해교육	14(21.5)	20(20.2)	34(20.7)
학력보완교육	21(32.3)	32(32.3)	53(32.3)
직업능력향상교육	0(0)	1(1.0)	1(0.6)
문화예술교육	14(21.5)	26(26.3)	40(24.4)
인문교양교육	13(20.0)	15(15.2)	28(17.1)
시민참여교육	3(4.6)	5(5.1)	8(4.9)
총계	65(100)	99(100)	164(100)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른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 지역의 야학이 인문교양교육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개설

16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4권 4호)

하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의 야학이 문화예술교육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개설하고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다른 영역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 권역별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권역별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6개 영역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권역별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대분류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제주	총계
기초문해교육	14(21.5)	5(17.9)	2(14.3)	10(21.3)	3(30.0)	34(20.7)
학력보완교육	21(32.3)	12(42.9)	5(35.7)	10(21.3)	5(50.0)	53(32.3)
직업능력향상교육	0(0)	1(3.6)	0(0)	0(0)	0(0)	1(0.6)
문화예술교육	14(21.5)	7(25.0)	6(42.9)	12(25.5)	1(10.0)	40(24.4)
인문교양교육	13(20.0)	2(7.1)	0(0)	12(25.5)	1(10.0)	28(17.1)
시민참여교육	3(4.6)	1(3.6)	1(7.1)	3(6.4)	0(0)	8(4.9)
총계	65(100)	28(100)	14(100)	47(100)	10(100)	164(100)

권역별 장애인야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수도권 이 상대적으로 기초문해교육 영역을 더 많이 개설하였고, 충청권은 학력보완교육을, 영남권과 호남권은 문화예술교육을, 강원·제주권은 학력보완교육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권역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운영주체별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운영주체별 즉,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야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6개 영역 분류 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운영주체별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대분류	법인	민간	총계
기초문해교육	7(14.3)	27(23.5)	34(20.7)
학력보완교육	14(28.6)	39(33.9)	53(32.3)
직업능력향상교육	0(0)	1(0.9)	1(0.6)
문화예술교육	14(28.6)	26(22.6)	40(24.4)
인문교양교육	10(20.4)	18(15.7)	28(17.1)
시민참여교육	4(8.2)	4(3.5)	8(4.9)
총계	49(100)	115(100)	164(100)

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야학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영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야학의 경우, 기초문해교육과 학력보완교육 영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4) 평생교육시설 등록별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평생교육시설 등록별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6개 영역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평생교육시설 등록별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대분류	등록	미등록	총계
기초문해교육	20(18.5)	14(25.0)	34(20.7)
학력보완교육	30(27.8)	23(41.1)	53(32.3)
직업능력향상교육	0(0)	1(1.8)	1(0.6)
문화예술교육	30(27.8)	10(17.9)	40(24.4)
인문교양교육	20(18.5)	8(14.3)	28(17.1)
시민참여교육	8(7.4)	0(0)	8(4.9)
총계	108(100)	56(100)	164(100)

18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4권 4호)

평생교육시설 등록별 장애인야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을 분석한 결과,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장애인야학에서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영역의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야학에서는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었다.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장애인야학에서 검정고시 교육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5) 학급규모별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학급규모별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6개 영역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학교규모별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대분류	5학급 미만	5학급 이상	총계
기초문해교육	12(16.4)	22(24.2)	34(20.7)
학력보완교육	26(35.6)	27(29.7)	53(32.3)
직업능력향상교육	1(1.4)	0(0)	1(0.6)
문화예술교육	18(24.7)	22(24.2)	40(24.4)
인문교양교육	12(16.4)	16(17.6)	28(17.1)
시민참여교육	4(5.5)	4(4.4)	8(4.9)
총계	73(100)	91(100)	164(100)

학교규모별 장애인야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을 분석한 결과, 5학급 미만인 야학에서는 학력보완교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5학급 이상인 야학에서는 기초문해교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개설하고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6) 프로그램 개설 규모별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프로그램 개설 규모별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6개 영역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프로그램 개설 규모별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대분류	7개 이하	7개 이상	총계
기초문해교육	12(19.4)	22(21.6)	34(20.7)
학력보완교육	28(45.2)	25(24.5)	53(32.3)
직업능력향상교육	1(1.6)	0(0)	1(0.6)
문화예술교육	14(22.6)	26(25.5)	40(24.4)
인문교양교육	5(8.1)	23(22.5)	28(17.1)
시민참여교육	2(3.2)	6(5.9)	8(4.9)
총계	62(100)	102(100)	164(100)

$$\chi^2=12.255, \text{ d.f.}=5, *p=.031$$

장애인야학의 프로그램 개설 규모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수가 적은 장애인야학에서 학력보완교육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수가 많은 장애인야학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이나 인문교양교육 영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야학의 본래 취지가 저학력 장애인들의 학력취득에 있으므로 프로그램 개설 규모가 적은 야학의 경우 학력보완교육 영역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이 연구는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정향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야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제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야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6개 영역의 개설정향성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야학은 본래의 목적인 기초문해교육이나 학력보완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을 골고루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18개 영역의 개설정향성 분석 결과에서도 한글

문화 프로그램이나 초·중 학력보완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그 외에 생활소양 프로그램,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 문화예술숙련 프로그램,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시민의식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복지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을 분석한 김두영, 김호연, 박원희(201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복지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60.1%)과 인문교양교육(23.0%)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반해 장애인야학은 직업능력향상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야학이 명실공히 대표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야학은 이미 지난 20여 년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취득의 기회를 제공해 왔고, 장애인야학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학 진학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자아성취감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야학은 장애인권 교육, 인문학 강좌, 철학반 등의 인문교양교육과 연극, 영화, 노래, 미술 등 문화예술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단순한 검정고시 야학으로서의 역할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대부분의 장애인야학은 운영비 등 예산지원의 부족, 교육공간 부족 또는 낙후된 교육환경의 문제, 학생들의 통학 문제, 교사 수급의 어려움, 보조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직업능력향상교육과 같이 장애성인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야학이 보다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장기적 계획과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야학의 특성변인별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별, 권역별, 운영주체별, 평생교육시설 등록 여부별, 야학규모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청권 지역의 야학이 영남권 지역의 야학보다 다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뿐, 지역별, 운영주체별, 평생교육시설 등록 여부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야학의 특성변인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역별, 운영주체별, 평생교육시설 등록 여부별, 학교규모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장애인야학과 미등록된 장애인야학 모두 프로그램 개설 규모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야학이 제도권 교육 바깥에서 자생적으로 태어난 평생교육시설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장애인야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필요와 수요로 인해 장애당사자와 야학 조직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역동적으로 생성되어 왔다. 설사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없다하더라도 즉, 국가나 지자체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생성에 적극적인 조장이나 예산 지원이 없다면이라도 장애인야학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과정 및 시설·설비 등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평생교육법 제31조는 이러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또는 지원상의 법적 근거를 명기한 것이다.

지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의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야학은 본격적인 학교교육 형태의 평생교육 지원의 장으로서의 가치를 부여받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교육행정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법률이 시행된 이후 많은 장애인야학은 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려고 했으나, 주무부서가 정해지지 않아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못해서, 관련 서식이 없어서, 담당자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몰라서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등록 업무조차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09).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장애인야학 지원 예산이 일반 회계 내에 규칙적으로 편성되지 않고, 특별교부금 형태인 일회성 예산으로만 책정되는 한계 때문에 모든 운영비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역시 정부 보조 없이 자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야학 운영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소극적이었다(김기룡, 2009). 이 연구에서 조사된 20개 장애인야학 중 아직까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지 못한 기관은 모두 9개(45.5%)로 여전히 과거의 장애인야학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장애인야학이나 미등록된 장애인야학 모두 교육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에게 늦게나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질적·양적인 면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우수한 프로그램은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유도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요인이다. 장애인야학이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지 못한 장애인야학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결론

장애인야학은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해 주는 검정고시 야학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학령기의 제도권 교육을 마친 장애인 성인들의 재학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제도권 교육이 모든 장애인들을 위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또 교육다운 교육을 수행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야학은 없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야학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식기반사회는 평생학습사회이다.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과 일반인간의 교육기회 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김병하, 2009). 현대의 지식정보사회에서 격차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쟁점 중의 하나로 이것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과 학습기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남들보다 지식과 정보에 쉽게, 그리고 빨리 접근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많이 가진 사람과 집단일수록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게 된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과 집단은 과거보다 심각한 격차를 현실적으로 실감하게 될 것이다. 최근 선진국에서 평생교육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업의 중요한 서비스 영역에 포함될 만큼 그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래 평생교육의 일차적인 관심은 소외된 계층이었다(김진화, 고영화, 2009).

장애인이 일반인과 구별됨이 없이 존엄성을 인정받고,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에 참여하여 만족할 만한 삶의 질을 향유해야 하는 것은 소외계층의 하나인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이 시대의 책임이요 국가의 의무(정동영, 정동일, 정인숙, 2003)라고 볼 때, 이제 장애인야학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빚진 자의 도리일 것이다.

먼저 아직까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지 못한 장애인야학이 등록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거해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나, 일부 장애인야학의 경우 이와 같은 시설·설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직까지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자격 요건만 갖추었다면 조건부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허가하고 시설과 설비 등의 교육여건을 조성해 주고, 이후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정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야학이 학교로서의 충분한 교육 여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로의 승격 여부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야학이 그 동안 민간교육기관으로서 장애성인들에게 기여했던 역할과, 장애성인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임을 고려해 볼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지원 가능한 예산 항목을 확대 조정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역시 일회성 예산 지원이 아니라 시설 운영비, 인건비, 차량운영비, 사업비 등의 일정 항목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재 개발 및 보급, 전문 인력 배치 등 장애인야학 운영에 필요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야학의 조건상 수업시간이 정규학교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교과 내용을 모두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또한 직업교육 등 전문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사 등 전문 인력의 배치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야학이 지원에 걸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적절한지 관리하고 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평가 결과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야학에 운영 개선을 권고하거나 지원을 축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성인 교육내용의 적합화와 다양화를 위해서는 장애성인 교육시설의 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실태를 평가 개선하는 것 역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참고문헌

- 강순원, 김윤태, 김정환, 박경석, 이미정 (2011). **서울형 장애성인 평생교육 운영 모형 개발**.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강창욱, 노은진 (2011). 한국농인들의 평생교육 실태 연구.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2(1), 113-140.
- 고영화 (2011). 대학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와 특성분석. 박사학위 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 곽승철, 임경원, 노진아, 이유리 (2010).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2010). **2010 평생교육백서[제13호]**.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 국립특수교육원 (2012).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기초 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김두영, 박원희 (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발 기초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8(2), 245-271.
- 김두영, 김호연, 박원희 (2013).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특수교육학회 2013 추계학술대회 자료집**(pp. 669-684). 대구: 한국특수교육학회.

2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4권 4호)

- 김병하 (2009). 장애인야학의 특수교육적 함의와 과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3), 321-328.
- 김용욱, 하상근 (2009). 장애인 야학의 전개와 운영상의 쟁점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두 야학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3), 159-186.
- 김진화, 고영화 (2009).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 평생교육진흥원 수탁연구 CR 2009-2.
- 박노동 (2011).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 대전: 대전발전연구원.
- 박성숙 (2005). 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은혜, 원중례, 김주영, 최옥이 (2007).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E시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연구**, 14(1), 3-24.
- 백은희, 광승철, 전병운, 김종인 (2001).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6(1), 169-205.
- 보건사회연구원 (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송소현, 김영미, 김영표, 나홍주, 박재국, 정해동 (2011). **특수학교 기반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모형 개발**.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윤점룡, 양종국, 원성옥, 강병호, 정인숙 (2010).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모형 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09). **장애성인의 학교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9-35.
- 정동영, 정동일, 정인숙 (200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의 요구분석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방향 탐색. **특수교육**, 2(1), 5-35.
- 정인숙 (2005). 정신지체 성인의 평생교육 요구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0(2), 207-232.
- 정인숙, 김현진, 김형일, 정동영, 정희섭 (2005).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정해동, 이성봉 (2007). 충남지역 평생교육 기관의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요구분석. **특수교육연구**, 14(1), 25-45.
- 최복천, 김기룡, 서은경, 도지영, 구미영, 송민경, 이상로 (2009). **경남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 경상남도교육정보연구원.
- Ashman, A., & Elkins, J. (1995). A life-span approach to education. In A. Ashman & J. Elkins (Eds.). *Educati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Sydney: Prentice Hall, 545-566.

Lifelong Education Program Open Orientation Degree Analysis in Korean Night Schoo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Kim, Doo-Young

Graduate School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Park, Won-Hee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Abstract>

The current study was implemented to understand the trend of setting programs for adults with disabilities at night school nationwide with applying classification system of lifelong-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20 out of 36 night schoo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participated and 164 programs which were ongoing at those schools currently were analyzed. The programs were classified into 6 different categories; type, purpose, content, for whom, method, and program location. Among 6 types of life-long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 ratio of academic ability of supplementation education was the highest(32.3%). The next highest type was culture-art education(24.4%). The results of more detail classification showed that among 18 types of life-long programs, the ratio of secondary academic ability of supplementation education programs was the highest(23.2%). The second one was programs about Korean alphabet literacy(17.7%). Moreover, the results of cross-tab analysis was added. Finally the suggestions o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results.

Key Words : life-long education, opening orientation degree,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lassification system of lifelong education, night schoo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논문 접수: 2013. 10. 21 심사 시작: 2013. 11. 10 게재 확정: 2013. 12. 06